‘U광주’서 ‘첨단 IT쇼’ 펼친다

〈유비쿼터스〉

첨단 정보통신기술(IT), 디지털 콘텐츠(DC), 뉴 미디어 신기술과 신제품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IT 쇼’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오는 12~14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8 광주 정보통신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14일에는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경연대회인 ‘2008 광주 e-스포츠 대회’도 함께 연다. 이 전시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12~14일 DJ센터, 디지털 콘텐츠 등 정보통신展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e-스포츠’ 최강전도 열려

정보통신과 게임, 뉴미디어 신제품과 첨단 기술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광주 정보통신전시회가 오는 12일 개막된다. 사진은 지난해 전시회때의 로봇춤 시연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정보통신 전시회

올해 6회째인 광주 정보통신 전시회는 ‘문화수도 광주, 유비쿼터스를 잡아라’를 주제로 IT 및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관련 총 76개 업체가 190부스를 통해 최근 IT 및 DC 산업의 발전 현황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나주 공동혁신도시, 여수 엑스포 등 대형 사업의 유비쿼터스 전략을 소개한다.

대기업관, 지자체 혁신관, 공공 유비쿼터스관, 온라인게임관, 산학협력관, 현장취업관 등 12개관으로 구성된다.

대기업관은 KT, 한국IBM, 삼보컴퓨터, LG앤시스 등이 참여해 IPTV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소개하고 신기술 정보를 교환한다. 지자체 혁신관은 여수 엑스포, 나주 공동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 등 광주·전남지역 대형 프로젝트를 영상물로 보여준다.

유비쿼터스관은 IT시장을 선도할 신성장전략 사업인 와이브로, 디지털 TV, 인터넷전화 등 신기술·신제품 전시와 e-러닝 콘텐츠, 인터넷 관련 장비 등이 전시된다. 산학협력관은 전남대, 호남대, 동신대 등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구인·구직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취업관도 운영된다.

특히 개막일인 12일에는 광주·전남지역에 들어설 초대형 인프라들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전략 특별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에서는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 전망과 나주 U-공동혁신도시 추진 방안, 여수 엑스포 유비쿼터스 전략 등에 대해 부문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광주 e-스포츠 대회

예선을 거친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린다. e-스포츠 대회는 창의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이끌어 내 지역 e-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올해로 세번째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피파온라인, 프리스타일, 카트라이더 등 5개 종목 40개팀이 실력을 겨룬다. 각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식 인증한 준프로게이머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결승전 경기는 판도라TV를 통해 중계된다.

특히 e-스포츠 출범 10년 만에 한국e스포츠협회 지부가 최초로 광주에 설립돼 14일 현판식을 갖는다. 지부 설립은 e-스포츠가 체육 정식종목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초사업이다.

◇부대 행사

프로게이머 시범 경기와 팬사인회, UCC 스타 초청공연, 비-보이 및 마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아케이드 게임, 보드게임, IT 패션쇼, 미용프로그램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 신안 팔금초교, 완도 군외초교, 보성 조성초교 등 농어촌 3개 초등학교 학생들과 정보·문화 산업 관련 특성화학교 학생들을 초청, 소외지역 어린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IT문화 욕구를 해소해 준다.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IT기반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뉴미디어, 창의력이 융합돼 꿈의 콘텐츠가 흐르는 전시회를 보여주겠다”며 “기업간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소연의 우주실험

❹ 한국식 우주식품

“오랫동안 우주에서 생활한 우주인들은 입맛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마치 피자를 먹으면 피클이 당기듯이. 둔해진 우주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고추장이었어요.”

지난달 31일 지구 귀환후 처음으로 고향 광주를 찾은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30·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는 외국 우주인들도 입맛을 살려주는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에 매료됐다고 밝혔다.

전주비빔밥·불고기·갈비·식혜…

한국 음식문화 송두리째 우주로

이 박사는 지난 4월12일 오후 7시15분(국제표준시간) 우주인의 날을 맞아 ISS에서 미국·러시아 우주인 5명을 초청, 우주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의 메뉴는 밥과 김치, 된장국, 고추장 등 한국 우주식품 10가지로 구성된 한정식이었다. 한국식 우주식품은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식품업체 연구소와 함께 개발했다. 이 음식은 ‘동결건조’, ‘고온 멸균된 포장’, ‘방사선 멸균’ 등 첨단과학이 동원됐다.

이 박사가 먹은 밥은 우주 음식으로는 드물게 수분이 65%나 함유돼 있다. 우주 음식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동결건조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우주에서 물을 첨가해 먹도록 만든다. 그런데 밥의 경우 완전 건조시키면 물을 부어도 찰기가 살아나지 않아 제 맛이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박사의 밥 개발을 맡은 한국식품연구원과 오뚜기는 밥을 짓자마자 고온 상태에서 살균·포장하는 신기술을 개발했고, 덕분에 이 박사는 준비된 밥을 오븐에 10분 정도 데워 ‘차진’ 밥맛 그대로 즐길 수 있었다. 수분이 있는 밥이 우주식품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SS에서 식사하기 전 한국식 우주음식을 차려놓고 포즈를 취한 이소연 박사.

우리나라 대표식품 김치도 특수처리돼 우주로 날아갔다. 김치가 적절히 익었을 때 방사선을 쪼여 멸균소독한 뒤 캔에 포장한 것. 캔 안에는 김칫국물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 패드를 넣었다.

다양한 간식거리도 만들어졌다. 그 중 하나는 50여 종의 생식원료를 혼합한 뒤 방사능으로 멸균 처리한 생식바다. 이 박사는 만찬후 디저트로 수정과와 녹차, 홍삼차도 내놓았다. 우주에서 라면도 먹었다. 우주는 물 끓는 온도가 지구보다 낮기 때문에 70℃에서 5분이면 익는 면이 특수 제작됐다.

이 박사는 우주만찬 이외에 한국식 우주식품을 두차례 더 먹었다. 그러면서 맛과 조직감, 생리적인 거부감 등을 평가했다. 이 실험은 미래 우주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 우주인에게 적합한 완전한 우주식품을 개발하고 군수용 식품 등 특수분야 비상식품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치와 라면 등을 개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는 “올해 안에 전주비빔밥을 우주식품으로 공식 인증받고 불고기, 갈비, 식혜 등도 우주식품으로 개발 중이다”며 “한국 음식문화를 송두리째 우주에 옮겨 놓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보 TIP

휴대폰 기본료 최대 50% 할인

메가패스+쇼+메가TV+인터넷 전화

KT·KTF 결합상품 10종 이달중 출시

메가TV 한집 3대까지 할인

KT는 한 가정 내에 최대 3대의 메가TV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복수단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두 대 이상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나 여러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유용하다.

메가TV를 두 번째 설치하면 사용료의 30%, 세 번째 설치하면 사용료의 50%가 각각 할인된다. 또 자녀의 학습을 위해 설치된 메가TV의 시청 연령을 12세, 15세, 19세 이상 등으로 설정하면 자녀가 제한등급 이상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하다.

KT와 KTF가 이동전화 기본요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의 결합상품 10여종을 이달 중순 대거 내놓는다.

특히 이번 결합상품 구성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결합상품 인가심사 면제 대상을 요금할인폭 10%에서 20%로 높인 것에 발맞춰 할인폭을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결합상품 요금 할인 경쟁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KTF는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IPTV, 와이브로(휴대인터넷)에 인터넷전화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묶은 새로운 결합상품 10여종을 이달 중순 출시하기로 하고 최근 방통위에 인가심사를 신청했다.

올들어 KT-KTF의 결합상품 출시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번 출시된 결합상품은 일반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인 ‘메가패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3G(세대) 이동전화인 ‘쇼’, IPTV인 ‘메가TV’,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를 선택하도록 한 반면, 이번에는 거의 모든 통신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조합했다.

특히 처음으로 인터넷전화가 결합상품 형태로 출시된다.

기존 결합상품의 경우 이동전화 기본료가 10% 할인되고 3명까지 묶어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앞으로 나올 결합상품은 이동전화를 3명 묶어 가입하면 각각 30%, 4명이면 각각 40%, 5명이면 각각 50%까지 기본료가 할인된다.

여기에 기존에는 3G(세대) ‘쇼’만 해당됐지만 이번에는 2G 서비스도 포함돼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KTF 이동전화 기본료가 3G의 경우 1만2천원, 2G는 1만2천500원으로, 50%가 할인된다면 각각 6천원과 6천250원이 절감된다.

한편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기본료 10% 할인하는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해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놓았지만, 고객 개인정보 유용 관련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를 앞두고 있어 출시를 늦춘 상태다.

/연합뉴스